

설 예 배 자 료

2018년 1월 16일

《 우리의 고유명절의 하나이며 음력1월1일은 ‘설’날입니다. 설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조상에 지내는 차례가 아니며 하나님께 신년을 맞이하는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부모님을 통해 주신 무형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

예배에의 부름과 기원 인 도 자

다함께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안에서 설을 맞이합니다.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함께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 송 가 383장(통43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주님!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 저희들의 허물과 죄는 용서해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과, 미움없는 사랑과 다툼없는 화평과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올해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1-2 인 도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말 씀 믿음으로 한 해를 엽니다 인 도 자

1.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따라간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한 조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해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행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2.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말씀해주십니다.
설 예배에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의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님을 의지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는 축복입니다.

5절에는 “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절망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죽음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자는 멸망치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자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축복은 믿음의 자손의 축복입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9세였습니다. 너무 늙어 출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수 있게 하였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2)

지난 한해동안 온 가족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라처럼 어려운 때도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따뜻한 계절, 형통의 계절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설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자손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속에서도 희망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새해를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 말 은 이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한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10초 동안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서로 인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누리세요!**